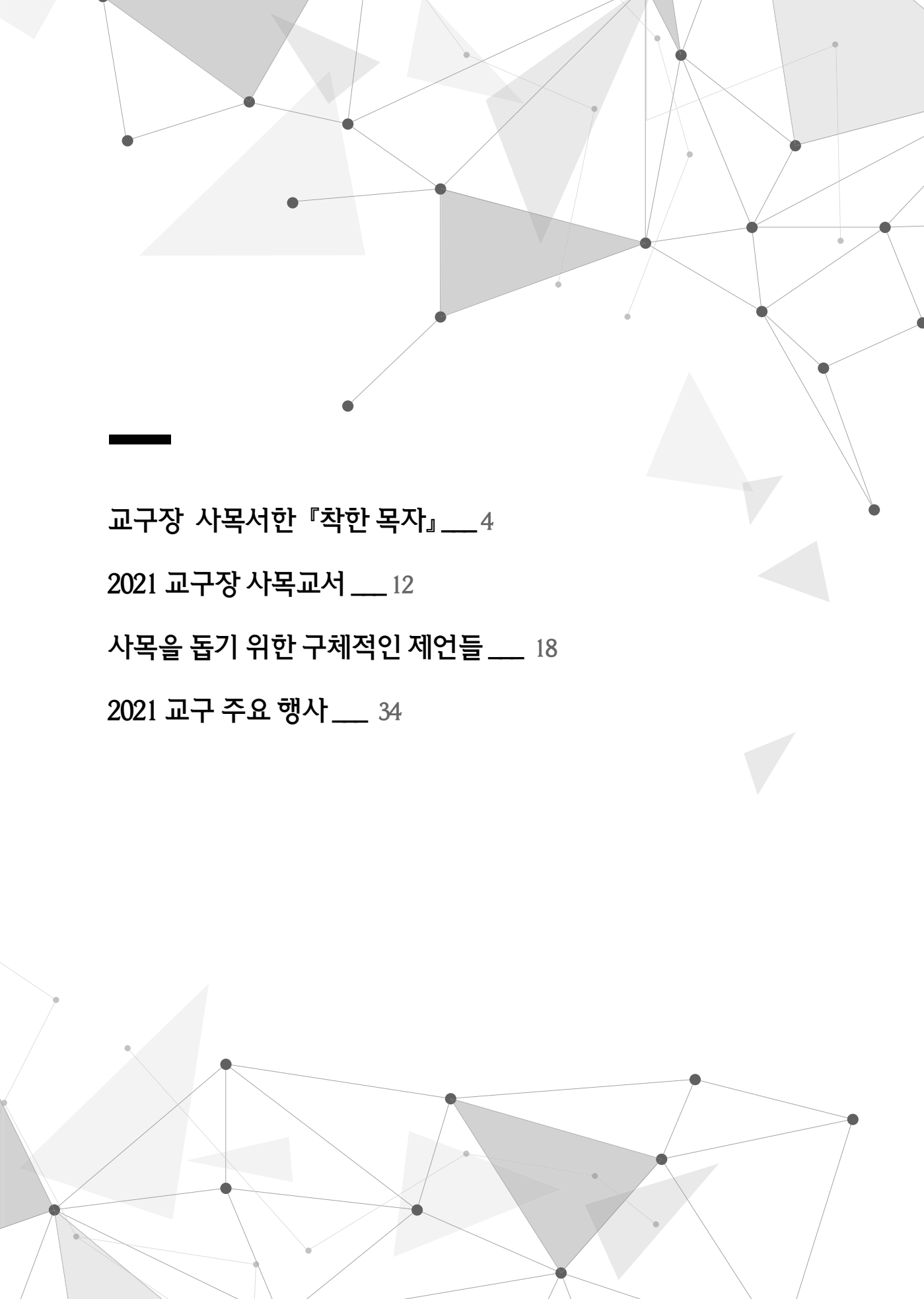


2021 사목지침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2코린 1,4)



천주교의정부교구



교구장 사목서한 『착한 목자』__ 4

2021 교구장 사목교서__ 12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__ 18

2021 교구 주요 행사__ 34

교구장 사목서한 『착한 목자(Pastor Bonus)』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사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I. 머리말

1) 우리 의정부교구 관내인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대교구 시절부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개발도 더딘 곳으로서 사목적 배려가 적은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2004년 교구가 설정되어 지난 10년 동안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한 결과 교세성장은 물론 신앙성숙 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 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교구민들의 신앙 실태와 사목 욕구, 교구의 내외적 사목환경에 대하여도 파악하는 한편, 그 사이 반포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보편교회의 사목 전망이 더하여져서 우리 교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목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도전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단계입니다.

II. 시대와 지역 사목환경의 특징

1. 물질과 세속적 가치로 인해 약화되는 영적인 가치

1)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만연으로 신자들조차 물질적 향유를 행복의 으뜸 조건이라 생각하며, 영적이고 신앙적 가치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신자들은 ‘신앙(15.6%)’ 보다 ‘건강(43.5%)’ 과 ‘가족(33.5%)’ 을 우선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의지’도 박약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죄의식(38.9%)’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답하였습니다.

2)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우리 교구의 첫 번째 사목방향을 신자 재교육을 통한 신자들의 신앙성숙, 곧 ‘영적인 가치를 세속적 가치에 우선하는 신앙생활’로 삼고자 합니다.

2. 시급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

1) 교구 사제들은 향후 교구 사목과 본당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봉사자 양성’을 꼽았습니다. 본당에 파견된 사목자 한두 명만으로는 많은 신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기 것이 어려워, 평신도 지도자 양성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 모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 현재 맞벌이 부부가 늘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봉사자가 급감하고 있지만 교회가 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매력보다 더 큰 매력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봉사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봉사자들에게 ‘소그룹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과도한 봉사활동으로 지치지 않도록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3. 가난한 이들을 찾아 나서야 할 교회

1)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방한하여 한국 주교단과 가진 만남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 요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근로자들, 새터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변방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는 우리 교구에도 중요한 사목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 교구 신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전교 방법’으로 ‘행동과 표양을 통한 모범(35.9%)’ 다음으로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에 대한 봉사와 나눔의 실천(31.4%)’을 2위로

답하였고, ‘사제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영역’에서도 가장 많은 신자 (32.1%)가 ‘소외계층 방문’을 들었습니다.

4. 교구의 지리적 특성

1) 우리 교구는 지리적 측면에서 북한과 맞닿아 있기에 다른 어느 교구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2) 우리 교구에는 민족 화해와 북방선교, 더 나아가 해외선교에 열정을 품은 많은 수의 사제들과 더불어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민족화해센터’가 있어 이러한 사명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III. 사목 방향 (다섯 가지)¹⁾

1. 소공동체

1) 소공동체 운동은 우선 하느님 말씀을 읽고 쓰고 나누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의 모든 차원에 공동체적 친교가 자리하게 하며, 밖으로는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쇄신하려는 교회의 다짐입니다.

2) 소공동체는 교회와 신자들이 세속화의 흐름을 거슬러 신앙성숙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향 가운데 하나로서, 보편교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복음화’에 부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갑시다.

1) 기존의 교구장 사목서한 「착한 목자」의 사목 방향은 네 가지였다. 여기에 2018년 교구장 사목교서에서 제시된 ‘통합사목’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2. 청소년사목

1)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청소년을 복음화 주체로 바라보는데 미흡하였고, 가정과 부모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임무에도 불충실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청소년·청년사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2) 청소년 사목의 과제는 사제들의 힘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와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먼저 사도로 양성되고, 또 이들이 다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사도로 양성할 수 있을 때 청소년 사목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양성’은 우리 교구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사목 방향입니다.

3. 사회사목의 활성화

우리 교구는 지난 십 년 동안 사회사목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더 큰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실천 방향입니다.

-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의 실천인 ‘사회교리’ 교육을 강화합니다.
- 사회사목은 소공동체를 통해 ‘행동하는 사랑’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성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4. 가정을 중심으로 사목 전반을 연계하는 통합사목

1) 2015~2016년 교구 사제단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사목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두 차례의 사제연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사목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시선으로 사목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목의 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며, 이는 무엇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신자교육과 사목을 인간의 생애 전체로 확장하고 연계하는 ‘통합사목’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2) 이에 ‘통합사목국’을 설립하여 현재 성인사목, 청소년사목, 사회사목 등으로 분절화된 교구의 사목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현장인 지역과 지구, 본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교구의 통합사목을 위해 사제단과 교구민 모두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복음선포를 향해 세상으로 달려 나가는 교회

1) 복음화는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교회의 과업이며, 교회의 영원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음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편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구가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북방선교와 우리 교구가 다른 교구에 모범이 되고 있는 해외선교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IV. 사목 방안 (여섯 가지)

1. 사목평의회 운영

성직자와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교구 구성원을 대표하는 이들로써 ‘교구 사목평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며 교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 사목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

- 1) “확고한 신앙과 덕망과 신중이 뛰어난” 평신도들을 협조자로 선발하고 양성한다.
- 2)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도 양성, 연구 기능 강화, 청소년 사목센터 설립, 청소년 사목을 주제로 하는 ‘사제 사목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사목을 활성화한다.

3) 소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계, 사회사목학교 운영을 통한 봉사자의 지속적인 양성 등을 통해 사회사목이 열매 맺게 한다. (‘소공동체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

4) 사목의 모든 대상이 가정에 살고 있다. 가정사목은 특성상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목의 범위가 신자들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있다. 이제 가정 사목은 사목의 일개 영역이 아닌 사목의 핵심 영역으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과 더불어 통합 사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5) 급속한 고령화, 노인 자살률 급증에 따른 노인사목 분야의 강화가 요청된다. ‘영 시니어’ (55세에서 75세)와 ‘올드 시니어’ (75세 이상)에 맞는 사목적 대응이 필요하다.

6) 사목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사목의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하고, 교구의 사목비전과 정책을 제안해 온 사목연구소가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지원한다.

3. 북방선교와 해외선교의 강화

1) 이 두 분야는 지역적 특성상 우리 교구가 장기 목표로 지향하면서도 당장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과 더불어, 북한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적합한 방법과 일들을 찾고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갑시다.

2) 북방선교는 짧은 시간에 이뤄질 일이 아니기에 중장기 계획 하에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족화해센터’ 안에 북방선교를 위한 연구 팀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선교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4. 수도자와의 협력

1) 한국의 많은 봉헌생활자들이 성소정체와 감소,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역할 축소 등을 경험하면서 역할 정체성 혼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회들은 오랜 봉헌 생활을 통해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와 수도회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음화와 교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2) 무엇보다 사제들이 수도자들에게 존경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배려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5. 기억의 지킴이 역할로서의 순교자 공경

1)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방한하여 주교단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이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로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성장은 고난과 노고의 열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2) 순교자 공경은 단지 과거에 대한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유산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한편, 순교자 공경이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순교 영성을 복돋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3) 이를 위해 우리 교구에서는 ‘순교자공경명도회’란 평신도 신심단체를 구성하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순교 신심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6. 사제 공동체

1) 오늘날 교회 안팎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사제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제들은 형제적 유대와 결속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느 신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사제들의 연대와 공동체적 결속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 교구의 사목 발전과 사제단의 일치를 위해 사제들과 교구장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제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가난은 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사제들이 앞장서 사치스러운 일을 피하고 자선을 하며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난’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교회와 성직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재

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4) 교구 관내 지역이 넓고, 지구마다 사목여건이 다르고, 또 사제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교구가 설립 초기부터 추구해온 ‘지구사목’은 사목적인 필요는 뚜렷하나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장 연수, 지구사목센터 설립, 지구 전담사제 등을 통해 지구사목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5) 타교구와는 달리 우리 교구의 ‘협력사목’은 어려움 중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제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제들은 협력사목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제도가 교구 사제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협력사목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력사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교구 협력사목 규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V. 맺음말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사목 방향을 우리 교구가 10년 동안 살아야 할 방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구는 여러 차례 교회의 삶을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교구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안에 친애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그리고 수도자들과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룩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2014년 대림 1주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

이기현

2021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2코린 1,4)**

1. 머리말

지난해에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2020년 10월 20일 현재) 발생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도시 안에서의 이동이 통제되기도 하였으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반경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움츠러들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인 사회, 경제, 교육, 이웃 관계와 서민들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때에 특정 종파를 통한 확산이 일어남에 따라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처럼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교구별로 신속하게 미사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상실감과 혼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우리 자신과 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자 희생으로 여겨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사와 다른 성사들, 그리고 각종 교육과 모임을 못 하는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신앙 생활이 어려워지고, 아쉽지만 그 대안으로 교회 TV 방송이나 온라인 미사, 온라인 강의 및 모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후에는 본당의 신부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 실천을 통해 미사를 통한 감염이 전혀 없도록 유지하는 성과를 내어, 안전한 성사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자들에 따라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가족들의 만류 때문에, 또 때로는 방송 또는 온라인 미사에 익숙해져서 가장 풍요로운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성당에서의 전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분들이 성찬례와 성사생활의 은총과 기쁨을 기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장기화와 2차 대유행을 충분히 경계하고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예측하면서 이를 대비한 사목적인 역량을 키우고, 특히 영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목교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체험하고 대응한 신부님들의 의견을 ‘지구사제모임’을 통해 들었으며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목평의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의견 중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사목적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60% 이상의 신부님들이 2021년 사목교서의 중점사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목적 대응이 포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신학적 성찰을 통한 위로와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신앙 활동에 대한 방안 마련,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과 비대면 청소년사목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2.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의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합시다.

올해는 50일이 넘도록 큰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수재민들에게 많은 고통이 되었고, 농부들이 심은 작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경제위기와 실업난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 인종차별로 인한 희생자들, 이주민과 난민들,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대면 속에 대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노동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이들 모두의 어깨에 힘겨운 멍에가 놓여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 도움은 물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함께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신앙공동체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3. 성찬례(미사)와 성사생활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비록 위급한 상황을 살아왔던 한해였지만, 성당에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주일미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찬례와 성사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모여, 천상 양식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이 지상 순례의 기쁨과 어려움 중에 힘을 얻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서신,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성사와 전례를 담당하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주일미사나 전례에 대한 새

로운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라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서한에서 “상황이 가능해진다면, 서둘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새삼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현장 10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목자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자들을 다시 ‘성찬례’에 초대해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예비자교리나 견진교리와 혼인교리뿐 아니라, 고해성사나 첫영성체를 비롯한 각종 성사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사목자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실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4.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목

2020년 교구 사제단은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합창단처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려고 부름받은 회중이며,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실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합의성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일컫기에 교회의 생활방식과 활동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하는 연수는 배움의 시간임과 동시에 사제들이 사목 현장에서 공동합의성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교회이기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함께 나누어져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동합의성이 사목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적 생태 영성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인

2020년은 모든 이의 삶에서 기후위기를 속속들이 체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대의 생산과 소비, 폐기 문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에, 코로나 19와 기후위기의 경고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 기후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에 중요성과 더불어 긴급성도 함께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축진을 위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통해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7개 영역과 7가지 목표: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 제언 ‘사회사목국’ 참조)을 출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교구도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에 대한 7년 여정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본당과 가정에서도 ‘생태적 회심’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6. 나는 천주교 신자임을 증거하는 해

한국천주교회는 2021년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지내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모진 박해를 겪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을 누리자고 옥중에서도 서신을 보내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스무 번째 옥중편지에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고 묻는 관장의 질문에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용감히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천주교 신자임을 용감하게 고백하신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임’을

증거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는 비극적 분단의 상황,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커다란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생명체들을 더욱 번성케 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투신하는 내가 바로 천주교 신자요!”라고 당당히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0년 대림 제1주일에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

이 기 현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

- 사제단과 평신도에 대한 공동합의성 교육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한해
- ‘생태적 회심’을 향한 교회의 초대에 응답하고,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 해
- 신앙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고, 가정기도와 신앙의 전수를 실천하는 한해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며,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한해

I. 통합사목국

1. 공동합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본당 사목평의회 운영

– 2021년 사제연수를 통하여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하 공동합의성)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과 같은 풍요로운 공동합의성의 내용을 한 번의 연수로 모두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에 대한 깨달음과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다시 성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 통합사목국에서는 공동합의성의 내용이 실현되어야 하는 여러 분야 중에서 첫 번째로 본당 사목평의회를 선택했습니다. “본당 안에는 공동합의적 특성을 지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본당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이다”(공동합의성 84항)

– 2021년 통합사목국은 공동합의성의 내용이 풍요롭게 실현되는 본당 사목 평의회 운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심있는 신부님들과 함께 작은 연수를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2. 평신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합의성 교육

- 공동합의성은 사제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본당 사목은 평신도들과 함께 공동합의적 사목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 특히 평신도 봉사자들을 위한 공동합의성 교육은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평신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합의성 교육을 선교 사목국과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보편 교회가 원하는 대로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 사목지표가 적용된 본당 사목 방문 실행

- 사목의 연속성이라는 주제 아래 본당의 사목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목지표를 적용한 본당 사목 방문 시범 운영을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II. 선교사목국

1.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사목적 대응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교구 내 다양한 사목적 대응을 정리하고 신학적 성찰을 통해 교구가 나아가야 할 사목적 방향을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당과의 소통을 통해 사목현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본당사목을 지원할 ‘사목자료실’ 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구의 ‘코로나19 백서’ 발간 작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당 차원에서도 가능한 ‘본당 코로나19 사목대응’에 대해서 정리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1) ‘코로나19 백서’ 발간
- 2) ‘코로나19, 신학적 성찰과 사목 방향’ 제언의 심화 작업
 - 선교하는 교회로의 ‘사목 방향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
 - 미사와 성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사목적 접근
 - ‘환대의 문화와 찾아가는 사목’의 실현을 위한 사목 대응 방안 찾기
- 3) ‘본당 코로나19 사목 대응 현황’ 조사 작업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 4) ‘사목 자료실’ 개설
 - 본당 사제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목 대응을 함께 공유하는 장
 - 본당 사목에 도움을 주는 사목 사례 및 활용할 다양한 자료 제공
 - 온라인 사목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개발

2. 공동합의성 (Synodality)의 실천

2021년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동합의성’에 대한 평신도 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당 사목평의회’ 위원들을 위한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도 ‘공동합의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신도들을 위한 ‘공동합의성 교육’
 - 교구 : 본당 대표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 지구 : 여성구 · 반장 월례교육
 - 본당 : 일반 교우들을 위한 기초교육
 - 평신도 교육을 위한 교재 제공
(‘강독을 위한 교재’ 및 ‘사진으로 읽는 공동합의성’)
- 2) 본당 공동체의 ‘공동합의성’ 실현의 장인 ‘사목평의회’ 활성화
 - 신임 본당 사목 위원들을 위한 교육
 - 여성 총구역장 연수 및 본당 여성 단체장 연수

- 공동합의성에 따른 ‘본당 사목계획수립 연수’

3) 평신도 대표들과 교구장의 만남

- 다양한 연령층의 본당 대표들이 교구장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
-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

3.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양들처럼(참조: 요한 10,1-18)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리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 길이 있지만, 우선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자주 접하기를 권고합니다.

1) 성경을 거실의 탁자와 같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고, 신약성경의 복음 말씀부터 조금씩 매일 읽기를 권합니다. (하루에 10쪽씩 읽으면 일 년 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습니다.)

2) 매일미사 책에 실린 매일의 말씀(독서와 화답송, 복음)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독서 중에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메모지에 적어 하루 동안 자주 들여다보며 그 말씀을 새기는 것도 권합니다.

3) 성경을 읽고 묵상과 나눔을 하는 본당의 성서사도직 단체(가톨릭 성서모임, 성서 못자리, 성서백주간 등)에 가입하는 것도 말씀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성사생활 및 신앙교육의 강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전부터 교회는 이미 ‘입문성사’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신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자들 스스로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대해

성찰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목국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한 ‘신자 평생교육 과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 신자교리

- 예비자 모집 횟수를 늘리고 소규모로 편성하기를 권고합니다.
- 주교회의의 사목연구소에서 제작한 ‘가톨릭 영상교리’를 활용합니다.
- 교리봉사자(동반자) 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2) 미사(성체성사)를 위한 전례교육 실시

3) ‘견진교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4)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나무그늘’ 활용

- ‘가정 공동체’를 위한 자료 제공 : 가정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 요약, 가정기도 및 전례모임을 위한 자료, 교회 내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 ‘성체 조배’를 위한 월간 자료
- 알기 쉬운 ‘교황님의 가르침’
- 신자 재교육을 위한 코너 신설 (미사, 수덕생활, 평화교육 등)
- ‘찬미받으소서’ 묵상하기와 실천포 제공

5. ‘가정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목의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 사목부’에서는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이 사목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목의 으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반 하겠습니다.

1)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가정사목 TF’를 구성하여 실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현실과 요청이 사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 사목’의 정착을 위해서 먼저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가정은 사목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사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혼인과 가정 그리고 사랑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 가정들 스스로가 서로 동반하여, 모든 가정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의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양성 프로그램 실시

3) ‘청소년사목국’과의 연대를 통해 특별히 ‘어린이·청소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4) 혼인교리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혼인성사”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혼인교리 담당자 양성 및 정기모임
- ‘약혼자 주말’ 활성화
- ‘신혼부부’들을 위한 하루 피정

5) 출산가정을 위한 교구장 축복장을 제공하고, 유아세례 및 생애주기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6. ‘생명존중’ 사목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선교사목국에서는 ‘생명존중 사목팀’을 구성하여 ‘생명나눔’과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신자들이 생명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청합니다.

- 1) 생명존중(사랑) 캠페인 실시
- 2) ‘생명 나눔’ 활동을 통한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 3) 자살 예방활동 : ‘자살 예방교육’,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 4)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자료집 보급

7.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노인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사랑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교황 프란치스코)

1) 본당 ‘노인 돌봄’ 플랫폼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육신의 건강 뿐아니라 정서적, 영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신자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돌보아야하는 분들입니다. 노인사목부는 각 본당에서 노인 신자분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노인 돌봄의 플랫폼으로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본당이 시행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교육 하였습니다. 방역 봉사 등 봉사자들이 해야할 일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동참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노인사목연구회’ 공동합의성의 원리에 따라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노인사목의 길을 찾고 견고자 지난해 시작한 ‘노인사목연구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획하며,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노인대학의 새출발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합니다.

II. 청소년 사목국

1. 가정은 희망의 공장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활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사목은 심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어린이·청소년들의 만남과 복음화의 과정이 여느 때와 다른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당에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모두 그분을 우리의 삶 안에서 증거가 돼야 하고, 또 신앙을 서로 전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받아서 자라나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 하며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정 안에서 지내는 오늘날, 신앙의 자리는 성당 건물만이 아니라 작은 신앙 공동체의 자리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희망의 공장입니다.”(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필라델피아)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희망의 공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청소년사목 안에서도 가정의 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 24) 코로나19로 또래와 만남의 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요즘, 가정을 중심에 두고 어린이·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1) 가정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한 부모교육
- 2) 가정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익히며 실천하는 교보재 개발·제작

2. 신앙을 살아가는 교리교사 양성

지난 10여 년간의 교구 청소년사목의 핵심은 어린이·청소년·청년의 ‘사도 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양성도 교구의 중점 사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좋은 결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많은 교사가 당황하고 방황하였으며,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사가 중지되자, 신앙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신앙을 전수해야 할 교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교사 양성에 있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전달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신앙적인 부분의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교사들을 위한 피정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연수가 신설됩니다.

- 1) 교사 피정 - 하느님 안에서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도록 함.
- 2) 단계별 교사 양성 - 단계적인 교사 양성(신입, 초급, 중급, 고급학교)을 통해, 연차와 함께 성장하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

3. 대면을 지향하는 온라인 사목

현대사회에서 웹과 소셜 네트워크는 소통의 도구 이상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얻고 배우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곤란해진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디지털 도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세상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도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사와 주일학교가 중지된 상황에서 청소년국은 온라인을 통한 미사와 주일학교, 교리 교육에 대한 요청과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와 웃음을 주는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의 상황 안에서도 청소년사목이 지속되고,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기쁘게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 콘텐츠는 늘 대면의 상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는 그 안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쁨, 오프라인에서 소통할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유대감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콘텐츠가 비대면을 강화하지 않고, 대면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1) 대면과 비대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공유 및 개발
- 2) 주일학교 관련자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공유 홈페이지 개설
- 3) 상호소통을 위한 온라인 채널 개설

4.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목

대면을 지향하는 청소년사목 방안 중의 하나로 청소년과 청년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쉬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청소년센터)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산지역에 마련되는 청소년사목 센터는 지역(5-8지구)의 청소년, 청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목자와 봉사자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모임·교육·교류·전례의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청소년센터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과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적인 갈망의 충족 (기도실, 상설고해, 퇴근길 미사, 작은 떼제 모임, 월피정, 기도학교, 교리교육)
- 2) 지구 사목을 위한 공간 활용 (지역 부주임 사제들의 만남과 교육 장소, 지구 혼인교리, 교리교사 교육, 예비신학생 모임, 각종 행사 및 모임 장소로 활용)
- 3) 실천으로 이어질 지적인 갈망의 충족 (생태 및 평화교육, 성경·신학 세미나, 인문학 살롱)
- 4) 활동적인 갈망의 충족 (영상 제작, 밴드, 청년 문인회, 영화포럼, 독서포럼)
- 5) 심리적인 갈망의 충족 (개인 상담, 집단 심리 상담, 미술·음악치료, 심리학 강좌)
- 6) 사회생활을 위한 도움 (자기소개서·면접·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현실적인 도움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좌)

Ⅲ. 사회사목국

1.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

1) 연대합시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으면서 ‘지구를 위한 회년’을 살도록 2021년 5월까지 특별 주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앞으로 7년의 여정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삶의 방향으로 7가지 목표, 즉 ‘지구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생태 경제학, 단순한 삶으로의 선택, 생태 교육, 생태 영성, 지역/지방/국가/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활동 강조’ 할 것을 소개합니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5월 24일자 교황청 문헌 참조).

또한 새롭게 ‘바티칸 코로나19 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면서 2020년 5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식량 위기와 통합생태론 : 교회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놓인 교회의 사명, 식량 위기의 문제, 창의적인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공동선과 모든 사람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길을 찾도록 우리를 간곡히 초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삶을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일상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삶을 더 가까이 마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에 대한 7년의 여정 시작의 작은 발걸음
(7가지 영역과 7가지 목표에 대한 교육 및 실천 그리고 연대)
- 신앙의 중심인 삶의 자리에서 ‘생태적 회심’ 의미 발견하기
-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사회적 가치 추구

2) 교육합시다.

사회사목국에서 생태위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수, 이론교육, 현장체험을 통해 기후위기와 우리 삶의 위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활동과 교육의 상황이 만남보다는 SNS를 통해 전해지는 교육 내용들 - 회칙 「찬미받으소서」, 도시농부학교, 생태영성학교, 도시텃밭교육, 생태시민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심도 있게 전달되도록 참여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 사목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적 생태영성 프로그램
- 본당과 지구의 연대 : 가톨릭 시민교육(정평위와의 연대) /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텃밭 양성 교육과정
- 생태, 환경보전 관련 도서 안내와 성찰 카드(참조 :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SNS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보내기

3) 실천(행동)합시다.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생태적 위기가 곧 인간 삶의 위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공동의 집’에 함께 사는 이웃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생태 환경을 돌보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운동에 함께 합시다. 착한 소비 생활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생태와 환경을 위해 일하는 작은 단체들 후원하기 (예, 지역 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가톨릭기후행동, 청소년기후행동, 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 녹색평론, 탈핵신문 등), 전기료, 상 하수도료, 냉/난방비 1%(스스로 양 선택) 모아 기부와 나눔 하기

둘째, 교구 내 본당과 기관의 여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협동조합 가입 또는 구성합시다.

셋째, 교구 내 본당에서 ‘1본당 1농가 연대’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넷째, 기후위기 관련 활동과 청원에 동참합시다.

2.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1) 연대합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약자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의료진과 생필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고, 서로 국경을 걸어 잠그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갖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서의 각자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난민과 빈곤층 등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인간의 삶은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속에서도 대면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며,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연민의 마음으로 난민들과 연대하고자 노력합시다.

우리나라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접수된 난민신청은 총 64,358건입니다. 2019년 한 해 난민 신청자(15,452 건) 중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79명으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EU평균 난민인정률 33%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사회사목국은 부정적인 시선과 거부감으로 난민 지위 인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난민들에게 복음적 실천의 작은 첫걸음 켜 지난 3년 동안 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주민, 난민을 위한 단기 쉼터 ‘베타니아’, 난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전진상우리

집', 그리고 2019년에는 동두천에 취학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동두천가톨릭센터' (1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소, 2층: 난민 공동체 모임 장소)를 건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동두천가톨릭센터'는 앞으로 난민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동두천 난민 사도직 모임은 공동합의적 연대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교육합시다.

난민활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의 시작으로 '1본당 1난민 가정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성과로 1기에는, 난민 활동가 32명, 2기 난민 활동가 39명, 3기에는 40명의 난민활동가를 배출, 난민 돌봄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활동가 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본당과 난민 가정의 1대 1 매칭을 통한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소통 등과 같은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의 모임을 주관, 지원하고, 난민 활동가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동행 길잡이' 발행 등은 교회의 세상을 향한 자그마한 '시대의 징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난민활동가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실천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에게 이주민센터 3곳과 여러사제와신자들의 도움으로 만든 FOJ(재난긴급모금)를 통해 몇 번에 걸쳐 긴급하게 경제적 수혈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고(취직의 어려움 등)는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 역시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작년에 이어 ‘1본당 1난민가정 돌봄사업’으로 제4기 난민자원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될 경우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본당의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겠지만 형제적 마음으로 동두천에 있는 난민공동체 3곳(난민 단기 쉼터인 베타니아공동체, 난민 미취학아동 돌봄인 전진상우리집, 취학아동 돌봄 및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 공간인 동두천 가톨릭센터)에 영적, 물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어떠한 원조(재정, 식량, 교육 등)도 받을 수 없는 환경(기후) 난민에 대해서도 배려와 관심을 갖고, 환경을 위한 나만의 작은 실천 표를 만들어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제결혼가정의 신자들에 대해 소속 본당사목구에서 우선적인 사목적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코로나 시대와 민족화해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천주교회는 ‘코로나 19’ 시대에서 특별히 북한의 주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인류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과 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와 지역에서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심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예측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경제제재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제재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화해와 일치의 사명을 가진 한국 천주교회는 위기에 빠진 북한의 동포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교회는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탓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는 재난의 시대에서 탈북민과 같은 소수자들은 쉽게 차별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더 나아가 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증오와 적대의 감정이 더 강하게 전파되기 쉬운 코로나의 시대에서, 민족화해위원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며, 연대와 교육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9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주모경)’를 바칩니다.

둘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토요기도회’ 및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월 1회 본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족화해학교’ 강의를 수강하고 심화 과정도 이수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강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민족화해위원회는 온라인 평화교육자료 ‘카드뉴스’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식자재 전달 등, 지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남북협력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가 아닌,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은 북한 주민들을 삶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특히 미국, 일본의 천주교회 등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2021 교구 주요 행사

제 목		일 시	장 소
신년하례식 겸 교구청 시무미사		1/4(월)	주교좌 의정부 성당
사제 · 부제 서품식		2/3(수)	주교좌 의정부 성당
사제 연례 피정	1차	3/8(월) ~ 13(토)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2차	5/11(화) ~ 18(화)	
	3차	7/13(화) ~ 20(화)	
	4차	10/11(월) ~ 16(토)	
교구 사무직원 피정	1차	3/4(목) ~ 5(금)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2차	3/17(수) ~ 18(목)	
	3차	3/25(목) ~ 26(금)	
성유축성미사		4/1(목)	주교좌 의정부 성당
첫주임연수		4/13(화) ~ 16(금)	교구청
새사제연수		4/20(화) ~ 22(목)	교구청
사제부모님 피정		미정	참회와 속죄의 성당
사제성화의 날		6/11(금)	지구별
사제연수	1차	9/1(수) ~ 2(목)	민족화해센터
	2차	9/8(수) ~ 9(목)	민족화해센터
	3차	9/15(수) ~ 16(목)	민족화해센터
	4차	9/29(수) ~ 30(목)	민족화해센터
	5차	10/5(화) ~ 6(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6차	10/7(목) ~ 8(금)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사제 총회		10/27(수) ~ 28(목)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피정동
성직자요역 위령미사		11/2(화)	길음동성당 울대리 묘원 야외 미사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폐막 미사		11/27(토)	주교좌 의정부 성당



2021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목지침서